



에브라 "지성이 최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28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FA컵 32강전에서 동점골을 터트린 뒤 팀 동료 다니 웰벡(왼쪽)과 파트리스 에브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성 기쁨과 좌절

## 리버풀과 FA컵 32강전 동점골 맨유 1-2 역전패로 탈락 빛바래

시즌 3호골을 터트린 '산소탱크' 박지성(31·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한 맨유)이 기쁨과 좌절감을 동시에 털어놓았다. 박지성은 28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 경기장에서 치러진 리버풀과의 FA컵 32강전에서 폴타임을 소화하며 다니엘 아케르의 선제골로 0-1로 뒤지던 전반 37분 동점골을 뽑아냈다. 하파엘이 오른쪽 측면에서 낮게 깔아서 차준 패스가 땅에 튀어 정면을 향하자 박지성이 이를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오른발 하프볼 슈팅으로 1-1을 만들었다. '박지성이 매치'로 치른 지난날 26일 위건

에슬레틱과의 정규리그 18라운드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린 뒤 꼭 한 달 만의 공격 포인트다. 하지만 맨유는 후반 종료 직전 리버풀의 디르크 카윗에게 역전골을 얻어맞으며 1-2로 져 탈락했다. 이날 패배로 지난 8일 맨시티와의 FA컵 64강전 이후 세 경기째 이어오던 연승 행진도 끊어졌다. 박지성의 동점골도 팀이 패하면서 빛이 바랬다. 박지성은 경기 직후 MU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 잘 뛰었고 충분히 이길 수 있었기에 패배에 화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 박지성은 "동점골을 넣었을 때는 정말 기뻐했다. 강한 상대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집중력을 잃고 역전골을 허용하는 통에 실망하고 있다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맨유의 라이벌이자 명문 구단인 리버풀의 안방 안필드에서는 항상 경기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자신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박지성은 "오늘 결과를 빨리 잊고 남아 있

**박지성 시즌 3호골 장면**  
28일 영국 리버풀 안필드 경기장, FA컵 32강전 경기 결과 맨유 1 : 2 리버풀

박지성 동점골(전반 37분)

- 1 하파엘 낮은 패스를
- 2 박지성 오른발 강한 슈팅

연말뉴스

는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선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현지 언론은 박지성의 활약을 높게 평가했다. 맨체스터 지역지인 맨체스터 이브닝뉴스는 박지성에게 "안필드를 구석구석 휘저으며 멋진 동점골을 터뜨렸다"며 하파엘(9점)에 이어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 8을 줬다. /연합뉴스

# 갈 길 바쁜 바르샤 또 무승부

## 레알은 승리 승점 7점차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8강전에서 '라이벌' 바르셀로나에 무릎을 꿇은 레알 마드리드가 정규리그 5연승으로 아쉬움을 달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2012 프리메라리가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레알 사라고사를 상대로 0-1로 뒤지던 전반 32분 카카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4분 크리스티나우 호날두의 역전골과 후반 11분 메수트 외질의 해기골이 터져 3-1로 역전승을 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17승1무2패(승

점 52)를 기록, 이날 비야레알과 득점 없이 비긴 2위 바르셀로나(승점 45)와의 승점 차를 7점으로 벌려 단독 선두를 이어갔다. 국왕컵 8강에서 바르셀로나에 1,2차전 합계 3-4로 패한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도 선제골을 내주며 위태롭게 시작했지만 짜릿한 역전승으로 7만5000여명의 홈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한편 선두 추격에 갈 길이 바쁜 바르셀로나는 정규리그 17위의 하위팀인 비야레알을 상대로 메시, 세스크 파브레가스, 아드리안 누 등 주전들이 모두 나섰지만 8차례 슈팅에서 단 2개의 유효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 속에 0-0으로 비겼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의 2012 유니폼 공개행사에서 안재준(사진 왼쪽부터), 김영욱, 이은재, 류원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전남 드래곤즈 새 유니폼... 용의해 우승 '용꿈'

전남 드래곤즈가 2012시즌 유니폼을 공개했다. 전남은 27일 광양 전남드래곤즈 기자 회견장에서 2012 용품 후원 조인식 및 유니폼 발표회를 가졌다. 전남 유종호 사장을 비롯한 구단 임직원, 정해성 감독, 펄미 배춘태 사장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골키퍼 이은재와 류원우, 수비수 안재준, 미드필더 김영욱이

유니폼 모델로 나섰다. 한편 이번 조인식을 통해 전남은 펄미(주식회사 비엔제이)와 용품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계약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이다. 전남 정해성 감독은 "올해는 선수단 모두가 꼭 우승 원년의 해가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시청 정혜정 크로스컨트리 1위

### 31분30초에 결승선

광주시청 육상팀 정혜정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정혜정은 28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6회 크로스컨트리대회에서 31분30초에 결승선을 끊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 정혜정은 앞서 14일에는 2012 전국로드레이스 여자부 10km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 행진의 시작을 알렸다. 정혜정을 비롯해 이세영·정복순을 출전시킨 광주시청은 개인 1위와 함께 여자부 종합 3위의 성적을 올리며 올 시즌 전방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편 이번 크로스컨트리 대회에는 2012 런던올림픽을 대비해 전지훈련중인 마라톤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실업팀 303명, 고등부 61명, 중등부 48명, 초등부 18명, 동호인부 130명 등 560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경기는 강항학경기장과 동아마리톤센터 크로스컨트리경기장 일원에서 초등부(4km), 중·고등부(8km), 동호인부·실업팀부(각 8km)로 나눠 진행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광송간도로

새우리병원

한일종합병원

북고당 한약방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